

<표 1> '11년 1분기 ~ 2분기 전체 상장사 대비 콘텐츠업체 유동비율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콘텐츠업체		전체상장사	
	2011년 1분기	2011년 2분기	2011년 1분기 ¹⁾	2011년 2분기 ²⁾
유동자산	119,632.4	117,749.1	90,945.0	105,152.0
유동부채	59,364.6	64,215.0	66,686.0	43,909.0
유동비율	201.5%	183.4%	136.4%	239.5%

- '11년 2분기 전체 상장사 대비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의 유동비율³⁾은 56.1%p 낮은 183.4%
 -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유동비율은 -18.1%p 하락

<표 2> '10년 2분기~'11년 2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유동비율 추이

(단위 : %, %p)

구분	2010년 2분기	2010년 3분기	2010년 4분기	2011년 1분기	2011년 2분기	2011년 2분기 전년동기증감
전체	194.2%	219.3%	199.5%	201.5%	183.4%	△10.8%p
게임	321.4%	377.1%	317.7%	299.9%	275.8%	△45.6%p
지식정보	268.7%	345.6%	303.3%	269.9%	288.3%	19.6%p
출판	234.1%	235.1%	223.1%	202.8%	202.4%	△31.7%p
방송	120.9%	161.5%	155.1%	171.3%	133.8%	12.9%p
광고	167.2%	175.2%	172.5%	161.0%	152.3%	△14.9%p
영화	82.4%	84.2%	70.7%	85.4%	75.8%	△6.6%p
음악	167.1%	174.7%	138.3%	186.2%	167.0%	△0.1%p
애니/캐릭터	155.4%	156.4%	130.0%	140.1%	120.3%	△35.1%p

- 전체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중심 유동비율은 '11년 2분기 183.4%로 전년동기대비 -10.8%p 하락
 - '10년 2분기 유동비율은 194.2% 이후 '10년 3분기의 219.3% 급상승에서 이후 급등락을 보이다가 '11년 2분기에 이르러 전분기대비 -18.1%p 하락. '11년 1분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유동성리스크 약간 상승
 - ※ 유동비율은 단기채무지불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업종별 차이가 있지만 200% 이하일 경우 해당 기업이 일정부분 유동성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

1)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50사 중 465사
 2)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60사 중 469사
 3) 유동비율 = 유동자산/유동부채×100 : 단기채무지급능력 파악 지표

- 게임 및 지식정보의 유동비율은 각각 275.8%, 288.3%로 현금흐름이 양호하나, 게임은 '11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-45.6%p 및 전분기대비 -24.1%p 하락. 지식정보는 전년동기대비 19.6%p 상승
- 방송은 '11년 2분기 유동비율이 133.8%로 전년동기대비 12.9%p 상승했으나 전분기대비 -37.5%p 급락
 - ※ 출판, 광고, 음악, 애니/캐릭터 '11년 2분기 유동비율은 각각 202.4%, 152.3%, 167.0%, 120.3%로 전년동기대비 -31.7%p, -14.9%p, -0.1%p, -35.1%p 하락해 전체 콘텐츠산업 유동리스크 확대에 다소 영향
 - ※ 영화 '11년 2분기 유동비율은 75.8%로 전년동기대비 -6.6%p 및 전분기대비 -9.6%p 하락했으며, 전체 콘텐츠산업 유동비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